

【특집】

##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고유환 (동국대학교)

### 국문요약

남북분단에 따른 '시대의 아들'로 태어난 북한학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존재구속성을 벗어나 객관적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희망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분단 이후 냉전이 진행되면서 북한은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 적대와 타도의 대상이었다. 1970년대 초 미·중 데탕트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북한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80년대 말 북한에 대한 '내재적 연구방법'이 소개되면서 북한연구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도 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연구에서 내재적 접근, 일상생활연구방법,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등을 적용하면서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의 북한연구는 어떤 특정한 연구방법이나 흐름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다원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북한연구의 흐름과 쟁점을 주요 세대별로 개관해 보고 주로 북한정치 분야 연구 동향과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북한연구방법론, 북한연구세대분류, 북한정치연구의 쟁점, 북한학, 북한붕괴론

---

\* 이 글은 고유환, “북한연구 현황과 과제: 정치,” 『북한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전문가토론회 (2019. 2. 12), pp. 19~27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은 2017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I. 머리말

남북분단 이후 북한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제 북한학과 통일학도 생소하지 않은 학문의 자리를 차지했다. 냉전이 진행되고 남북 사이의 체제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한을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타도와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시기도 있었다.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북한연구의 경향도 변화해왔다. 냉전시대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연구를 비롯해서 사회주의권(공산권) 연구는 ‘방법론적 예외주의’, 또는 ‘이론적 고립주의’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체주의 접근 이외에 특정한 연구방법론 적용 없이 사건위주의 개성기술적인(idiographic) 접근과 정세분석 및 정보분석을 하는데 치중했다.

1970년대 공산권 내부의 분화 움직임과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변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비교정치이론 등을 공산권연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1978년 중국의 덩샤오핑 지도부 등장 이후 개혁·개방정책의 시행과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페레스트로이카정책 추진을 계기로 사회주의권 연구는 활성화됐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초 미·중 데탕트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북한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sup>1)</sup>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북한을 화해협력과 공존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1)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북한, 공산권, 통일, 극동문제 등과 관련한 연구소들이 대거 설립되고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북한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당시 괄목할만한 북한정치연구는 공산권연구실 편, 『북한 정치체제 연구』(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등이 있다.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계기로 ‘북한 바로알기운동’이 벌어지고, 북한에 대한 ‘내재적 연구방법’이 소개되면서 북한연구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도 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연구는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지고 있다. 사회주의권에서 흘러나온 북한관련 자료,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북한자료 개방, 북한이탈주민들의 대거 입국 등으로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 환경은 많이 좋아졌다. 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에 설치된 북한학과에서 북한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연구자의 수가 늘어났고, 연구분야도 정치, 통일, 외교분야 위주에서 경제, 사회, 문화, 일상생활 등으로 확대됐다. 연구방법 면에서도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북한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북한학 이외의 개별 학문 분야에서도 북한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제 북한연구가 북한학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금의 북한연구는 어떤 특정한 연구방법이나 흐름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다원화되었다. 최근 북한연구는 냉전시대 북한연구방법의 대세였던 전체주의 접근과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바로알기운동 차원에서 도입된 내재적 접근을 넘어 다양한 인식론과 방법론, 분석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연구는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 늘어났다.

이 글에서는 북한연구의 흐름을 주요 세대별로 개관해 보고 주로 북한 정치분야 연구동향과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2) 이 논문의 상당부분은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창간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9), pp. 29~71; 고유환, “북한연구에 있어 일상생활연구방법의 가능성과 과제,” 『북한학연구』, 제7권 제1호 (2011), pp. 5~24; 고유환, “북한연구동향,”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 60년사(증보분) 2003-2013』 (한국정치학회, 2013), pp. 258~282; 고유환, “분단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15), pp. 29~54; 고유환, “북

## II. 북한연구방법론의 변천과정<sup>3)</sup>

### 1. 북한연구의 세대분류와 제1 ~ 2세대 북한연구방법

북한연구의 세대분류는 주요 역사적 시기와 방법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다소 자의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sup>4)</sup> 국내 북한연구의 제1세대는 분단 이후 북에서 내려오거나 국내에서 북한 공산주의를 연구한 학자들로, 북한연구에 특별한 이론이나 방법론 도입 없이 북한 공산주의 운동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북한실상을 소개하거나 비판하는데 치중한 전문가들이다. 제2세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주로 서구에서 국제정치학과 비교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과 국내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로서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방법론을 북한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학자들을 꼽을 수 있다. 제3세대 북한연구자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국내외에서 북한을 연구한 학자들로서 ‘북한바로알기운동’과 내재적 접근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북한연구를 시도했던 학자들이다. 북한연구의 제4세대는 1994년 국내에서 북한학과의 창설되는 등 ‘북한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북한학을 전공

---

한연구 방법론의 성찰과 모색,” 조영주 편저,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방법론·연구방법』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5), pp. 27~53 등 필자의 기존 연구를 대폭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3) 북한연구방법론 전반에 관한 연구서는 경남대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1』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현대북한연구회,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2』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조영주 편저, 위의 책 등이 있다.
- 4) 북한연구의 세대분류는 고유환, “분단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pp. 29~54 참조.

한 북한연구의 새로운 세대로 2000년대 이후 본격화한 일상생활연구방법, 도시사연구방법<sup>5)</sup>, 행위자-네트워크이론 등을 북한연구에 적용하면서 ‘밑으로부터의 북한역사’, 미시사 등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속살을 파헤쳐 보려는 학자들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세대분류는 연구의 지배적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다소 자의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연령적으로는 제4세대로 분류할 수 있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제1~2세대가 주로 사용하던 전체주의 접근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냉전시대 북한연구는 전체주의 접근법에 따라 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 조선로동당, 헌법 등 정치사상, 지도자, 권력구조 등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위로부터 이뤄지는 통치과정을 ‘정태적(static)’으로 분석했다. 냉전시대 북한연구는 방법론의 적용 없이 정치적 사건 등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거나 전체주의 접근방법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데 치중했다. 체제경쟁이 치열했던 냉전시대, 김일성체제의 약점을 지적하는 전체주의 접근법이 북한 ‘유일체제’의 속성을 정태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엘리트 충원과정이나 이익집단의 갈등<sup>6)</sup> 등 정치과정의 ‘동태성(dynamics)’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전체주의 접근법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1970년대부터 비교정치 연구방법을 북한연구에 적용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일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소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미·중간 데탕트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변화’에 대

5) 북한도시와 관련 연구는 고유환·박희진 외 공저,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고유환·박희진 외 공저,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 도시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등이 있다.

6) 북한 김정일 시대 경제개혁과 내구력을 ‘기대효용모델’과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괄목할만한 연구는 Bruce Bueno de Mesquita·모종린, “북한의 경제개혁과 김정일 정권의 내구력 분석,” 『통일연구』 창간호 (연세대 통일연구원, 1997), pp. 49~68을 참고 바람.

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는 비교정치이론을 사회주의·공산주의 연구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서구에서 비교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행태주의에 기초한 구조기능이론 등을 북한연구에 적용하여 정치과정의 동태적 측면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데올로기적 제약 없이 북한연구가 본격화한 시기는 1990년대 초부터일 것이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사회주의와의 체제대결은 끝났다’, ‘역사는 끝났다’는 인식이 반영돼 북한연구도 이데올로기적 제약과 자료부족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방법론적으로 충실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소련붕괴 이후 개방된 북한관련 자료는 북한정권의 수립과 김일성 유일체제 형성과 관련한 연구를 촉진했다.<sup>7)</sup>

## 2. 제3세대 내재적 접근을 둘러싼 논쟁

1990년대 초 본격화한 북한연구 제3세대의 내재적 접근을 둘러싼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은 방법론에 충실한 북한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sup>8)</sup>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무렵인 1980년대 말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방법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기존 연구와는 확연히 다른 인식론과 방법론을 북한연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sup>9)</sup> 내재적

7) 안드레이 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서울: 오름, 1995); 중앙일보,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 2』 (서울: 중앙일보, 1992); 박길용·김국후, 『김일성 외교비사』 (서울: 중앙일보, 1994) 등.

8) 내재적 접근법의 장점을 지적하는 한편 그 결함과 한계를 비판한 논문은 주로 강정인에 의해서 제기됐다.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내재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 (1993); 강정인, “북한연구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제26집 (1994년 가을호), pp. 318-342;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재론,”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1998), pp. 7-42. 내재적 접근에 관한 논쟁은 주로 송두율, 이종석, 김연철과 강정인 사이에 이뤄졌다.

접근방법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내적 작동논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비교 사회주의 방법론을 북한연구에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내재적 접근방법에 대한 ‘친북’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내재적 접근방법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내적 작동논리를 파악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내재적 접근의 정확한 의미와 방법론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치열하게 벌여졌던 방법론 논쟁<sup>10)</sup>은 결국 내재적 접근이 방법론의 의미도 있지만 인식론에 가까운 ‘접근태도’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정리됐다.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이 소개될 당시 일각에서 ‘내재적’을 칸트의 인식론인 ‘내재적-비판적(immanent-critical)’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외재적(external)’과 대비되는 ‘내재적(internal)’으로 인식하면서 논란이 초래됐던 것이다. 송두율은 사회주의를 전체주의이론과 마찬가지로 ‘밖’으로부터 시민적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척도로 분석하지 않고 “사회주의 이념과 현실을 내재적으로 즉, ‘안’으로부터 분석 비판하여,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이념과 정책의 바탕 위에서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회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이 사회가 이미 설정한 이념에 비추어 검토·비판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두율은 “내재적인 접근태도는 이분법적 전체주의이론적 접근이나 기능주의적 산업사회이론적 접근방법과는 달리, 사회주의 스스로가 설정한 이념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현실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두율은 “내재적인 사회주의 접근방식은 전체주의나 산업사회이론이

9) 프란시스 후쿠야마 등이 ‘역사는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송두율은 ‘역사는 끝났는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고 내재적 접근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종합해서 소개했다. 송두율,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당대, 1995), “제4부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pp. 205~304에서 1988년부터 국내에 소개한 내재적 접근과 관련한 자신의 글들을 종합해서 다시 소개했다.

10) 이국영, “독일 내재적 접근의 한국적 수용과 오해: 북한연구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0권 2호 (2008 하반기).

근거하는 ‘선협적’ 입장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은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사회주의 스스로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실체와 기능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 내재적 접근의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sup>11)</sup> 한편, 송두울은 내재적 접근이 “각국 사회주의에 내재하는 이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자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개입될 수 있고, “사회주의를 ‘밖’에서 들여다보는 ‘선협주의’적 태도와는 달리 자본주의와는 구별되는 사회주의 독자성은 물론 그 발전의 다양성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방법론적 결함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내재적 접근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는 아이는 나쁘다’는 선협적 가치 판단을 먼저하고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배가 아파서 우는지를 아이의 입장에서 먼저 파악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재적 접근은 냉전시대 왜곡된 북한인식과 북한연구를 바로잡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내재적 접근의 도입 초기 북한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북한 특수주의와 예외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편향이 나타나면서 ‘친북좌파’ 시비가 불기도 했다.

송두울에 의해 소개된 서구중심주의시각에서 벗어난 내재적 접근은 ‘1987년 체제’ 출범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열망을 반영한 ‘북한바로알기운동’과 결합되면서 북한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북한인식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재적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학자들과 정치인들을 친북좌파로 매도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좌·우를 가르는 기준을 변화에 대한 정치적 태도가 아닌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두는 경향이 나타났다.

11) 송두울, 『역사는 끝났는가』, pp. 210~211.



내재적 사회주의 분석방법을 적용한 학자는 동독연구가인 루즈(P. C. Ludz), 사회주의 비교연구가인 바이메(K. V. Beyme), 소련과 중국사회주의 비교연구<sup>12)</sup>를 진행한 송두율 등이 있다.<sup>13)</sup> 인식론이 방법론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접근은 인식론과 방법론 측면에서 북한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를 제시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다.

### 3. 제4세대 연구방법론의 다양화

최근 사회학, 문화인류학, 문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북한연구에 도입돼 북한연구는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는 일상생활연구방법<sup>14)</sup>, 행위자-네트워크이론<sup>15)</sup>, 문화인류학<sup>16)</sup> 등을 북한연구에 적용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새롭게 부각한 북한연구방법 중에 주목할 방법

- 
- 12) 송두율, 『소련과 중국: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농민·지식인』 (서울: 한길사, 1990).
- 13) 송두율, 『역사는 끝났는가』, pp. 208~209.
- 14) 박순성·홍민 엮음,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홍민·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 15)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관한 초보적 이해는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 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2010)를 참고 바람.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북한연구에서의 적용에 대해서는 홍민,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북한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 pp. 106~170; 고유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위협 인식과 대응에 관한 행위자-네트워크,”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2호 (2013), pp. 57~85; 동국대 분단/탈분단연구센터 엮음,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5) 등을 참고 바람.
- 16)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파주: 창비, 2013).

론은 일상사연구방법 또는 일상생활연구방법이다. 우리나라 사회과학계에서의 일상생활연구는 1970년대 이전까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사회과학에 깊게 각인된 합리주의와 실증주의는 과학이란 엄밀성에 강하게 집착한 나머지, 인간 존재의 따뜻함과 분열, 감정적 복잡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해온 측면이 강했다.<sup>17)</sup> 서구에서의 일상생활·일상사·미시사 연구는 주로 역사학과 사회학에서의 문화연구<sup>18)</sup>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에서는 주로 역사학<sup>19)</sup>과 사회학<sup>20)</sup>에서 일상사·일상생활연구를 수용하고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역사연구의 새로운 경향으로 등장한 일상사연구는 19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기존의 사회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관련이 깊다.<sup>21)</sup>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진행된 사회주의권 붕

17) Michel Maffesoli,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Epistemological Elements,"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Current Sociology*, Vol.37, No.1 (Spring, 1989), p. 1.

18) 일상생활과 관련한 문화이론에 대해서는 Ben Highmore, *Everyday Life and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02)을 참고 바람.

19) 역사학에서 일상사연구를 도입한 대표적인 연구는 안병직 외 공저, 『오늘의 역사학』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8)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알프 린트케 외 지음, 나종석 외 옮김, 『일상사란 무엇인가』 (서울: 청년사, 2002); 곽차섭 엮음, 『미시사란 무엇인가』 (서울: 푸른역사, 2000) 등이 있다.

20) 사회학에서의 일상생활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박재환 외 공저, 『일상생활의 사회적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가 있다.

21) 역사의 과학화를 표방했던 사회사는 구체적인 인물의 행위보다는 그들이 속해 있던 구조와 과정을 중시하는 연구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사는 역사의 통일적이고 단선적 과정을 상정하여 역사를 근대화·산업화·합리화·도시화 등의 '증심통합적' 시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일상사는 근대화 등의 현상을 일면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개개인들의 저항의 모습, 또는 그러한 현상에 대한 암묵적 수용 등의 다양한 삶의 층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한다. 한마디로 일상사는 '구조의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로 방향 전환을 강조한다. 박원용, "스탈린 체제 일상사연구의 현황과 쟁점," 박순성·홍민 엮음,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pp. 16~17; 안병직, "일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 pp. 30~41.

괴를 예측하지 못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회과학계에서 일상사연구가 본격화했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사회과학자들과 역사가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어느 누구도 사회주의권 붕괴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서구의 잣대와 이론으로 제단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사회주의체제의 인민대중(민중)의 ‘선호위장(preference falsification)’ 등 속살을 읽어내지 못했다. 동독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는 광경을 지켜보던 역사가들이 정신을 차리고 확인한 것은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민중이라는 것이다. 이를 깨달은 역사가들은 기존의 사회과학 이론과 모델을 적용하는 대신 일상사적인 연구로 눈을 돌렸다. 김기봉이 지적한 바와 같이 “김수영의 〈풀〉에서 노래했듯, 바람보다 먼저 누웠던 풀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듯한 민중의 잠재 에너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일상사연구를 수행하면서 독재국가가 은폐한 현실 사회주의의 속살이 보이기 시작했다.”<sup>22)</sup>

제3세대까지의 북한연구가 주체사상, 당-국가체제, 유일체제의 형성과 후계구축 등 주로 상부구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주목했다면, 일상생활연구는 주민의 일상을 통해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전의 북한연구가 사상, 제도, 지도자, 체제 등 공식사회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위로부터의 연구’라는 데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sup>23)</sup> 2000년대 초부터 북한연구에 일상사 또는 일상생활연구방법이 도입됨으로써 밑에서 이뤄지는 주민들의 일상이 상부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극도로 폐쇄체제를 유지해 왔

22) 김기봉, “북한에 대한 일상사연구의 가능성과 의미,” 박순성·홍민 엮음,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pp. 119-120.

23) 2000년대 이전의 북한연구경향에 대해서는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를 참고 바람.

던 북한에 대한 일상생활연구가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면접조사가 가능해 짐으로써 북한의 일상생활연구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일상생활연구방법이 북한연구의 한 방법론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상부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전체주의접근법과 구조기능이론 등이 사회주의권 체제전환 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일상생활연구는 미시세계와 거시구조, 과거와 현재를 ‘짜 집어(patchwork)’ 북한사회의 속살을 파악하려는 노력이다.<sup>24)</sup> 북한사회에 대한 일상생활연구가 절실한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의 집단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sup>25)</sup>

최근 북한연구에서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연구동향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 ANT)<sup>26)</sup>의 적용이다. 행위자-네트워크(연결망)이론은 1980년대 초반에 과학기술학을 연구하던 프랑스의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미셸 칼롱(Michel Callon), 그리고 영국의 존

24)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등으로 대표되는 일상생활연구자들은 “일상의 현대성을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의 짜집기(패치워크) 같은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Ben Highmore, *Everyday Life and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 pp. 174~175; 고유환, “북한연구에 있어 일상생활연구방법의 가능성과 과제,” 『북한학연구』, 제7권 제1호(2011).

25) 김기봉, “북한에 대한 일상사연구의 가능성과 의미,” p. 116. 김기봉은 “주체사상에 세뇌된 인민들은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했다”고 보고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이라는 생체권력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남북통일이란 불가능하며, 만약 돌발사태가 일어나 통일이 도둑처럼 찾아온다고 해도 그 결과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6) 홍민,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북한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pp. 106~170.

로(John Law) 등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은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형성되는 네트워크(연결망)에 주목한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기계 같은 비인간(사물)들이 인간처럼 행위능력(행위성, agency)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인간과 비인간을 동등한 행위자로 다루고 인간과 사물의 동맹이 권력(힘)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7)</sup>

분단체제를 둘러싼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구조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비인간(사물), 국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자-네트워크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한반도 정세를 지배하는 북핵문제는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는 ‘의무통과지점’으로 남북한 각각의 국내 정치와 분단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동북아시아 지역 관련 국가들의 대외정책과 세계체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28)</sup> 북한연구에서도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사물) 행위자-네트워크를 분석해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변화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

27)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대한 이해는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 홍성욱 옮김,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민,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북한연구,” 조영주 편저,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방법론·연구방법』, pp. 262~291; 동국대 분단/탈분단연구센터 엮음,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등을 참고 바람.

28) 고유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위협인식과 대응에 관한 행위자-네트워크,” pp. 226~263.

### Ⅲ. 북한정치연구의 동향과 쟁점

#### 1. 북한붕괴론과 희망적 사고

북한정치연구 동향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냉전시대 북한연구는 당규약과 헌법에 나타난 당-국가체제의 권력구조 파악, 지도사상과 지도자 연구, 북한국가(체제) 성격연구가 주류였다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 면에서도 법적·제도적 접근, 구조기능이론의 적용, 역사적 접근, 문헌중심적 서술이 주류였다. 특히 냉전 초기 남북사이의 체제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북한은 적대와 타도 그리고 극복의 대상이었기에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연구에 특별한 방법론과 이론을 적용하지 않고 정보분석 위주의 연구나 시사해설수준의 서술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 인식론이 방법론을 결정한다고 할 때 냉전시대 북한을 적대시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객관적인 북한연구가 어려웠다. 이데올로기 비판차원에서 이뤄진 상당수의 북한연구는 북한체제와 지도자의 약점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데 치중했다.

몇 차례 반복해서 나타났던 북한붕괴론과 급변사태론에서 확인했듯이 북한연구에서의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와 ‘당위적 주장’의 반영은 과학적 북한연구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본격화한 ‘북한붕괴론’ 논쟁은 이후에서도 몇 차례 반복됐다.<sup>29)</sup> 1990년대 중반의 북한붕괴론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북한의 붕괴도 멀지 않았다는 가설에 따른 것이다. 1994년 7월 8일 절대적 카리스마를 가졌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비교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을

<sup>29)</sup> 이현경, “북한연구 현황과 접근방향,” 『평화학연구』, 제11권 제4호 (2010), pp. 88-91.

전공한 유학과 제2세대 북한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북한붕괴론이 급속히 부각됐다. 김영삼 정부 당시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붕괴론이 득세하면서 각 부처별 급변사태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에서도 북한의 분야별 위기지수를 계량화하면서 단기적으로 정권유지, 중장기적으로 정권교체 및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예측한 바 있다. 당시 필자는 식량난 등 북한의 경제위기가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적이 존재하고, 주변 4국이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고 변화를 이끌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아 ‘근근이 버텨낼 것(muddling through)’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30)</sup>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을 계기로 급변사태론과 북한붕괴론이 다시 부각한 바 있다. 북한붕괴론이 나왔던 두 사례 모두 북한 지도자 변수가 다른 변수를 압도하면서 지도자의 유고를 정권과 체제 붕괴로 연결지우는 ‘희망적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붕괴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한연구에서 가끔 목격할 수 있는 문제점은 ‘과학적’ 분석과 ‘규범적’ 주장이 혼재돼 나타난다는 것이다.<sup>31)</sup> 북한정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대북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북한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주력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북한이 붕괴되면 핵문제를 비롯해서 산적한 북한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북한붕괴론에서 보듯이 북한연구에서 경계해야 할 연구자의 자세는 희망적 사고를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다.

30) 고유환,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김정일정권의 진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2호 (1996년 여름), pp. 225~245.

31) 이상근, “북한붕괴론의 어제와 오늘: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북한붕괴론에 대한 평가,” 『통일연구』, 제12집 2호 (2008), p. 112.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북한붕괴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한국계 미국학자는 빅터 차(Victor Cha)다. 빅터 차는 북한을 ‘불가사의한 국가(The Impossible State)<sup>32)</sup>로 규정하고 곧 사라질 국가로 봤다. 빅터 차는 북한이 불가사의한 국가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 내부에 정권을 전복할 만한 세력이 부재하기 때문이고 외부에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관심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빅터 차는 “북한체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 요건이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한국의 관용, 중국의 지원, 뜻밖의 행운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특이하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그 동력을 상실”하고 있고, “국가와 주민 사이에 커져가는 괴리는 심각한 정권 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북한체제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예측했다.<sup>33)</sup> 빅터 차는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체제가 곧 붕괴할 것이고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정권의 정통성을 잃었다”<sup>34)</sup>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빅터 차 그 자신도 “나는 한반도가 서서히 역사의 종언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sup>35)</sup>고 말했다.

김일성-김정일 건강이상과 사망, 2004년 용천폭발사건, 2016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 망명 등 특정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북한권부의 이상조짐으로 해석하며 북한붕괴론이 망령처럼 되살아났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 8월 22일 “최근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어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32) 빅터 차, 『불가사의한 국가』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6).

33) 위의 책, p. 36.

34) 위의 책, p. 565.

35) 위의 책, p. 566.



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배경에는 북한붕괴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정세판단과 ‘불량정권’은 붕괴돼야 한다는 당위론 및 희망적 사고가 반영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화답하는 동안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고 핵능력은 고도화됐다.

## 2. 극장국가론과 카리스마 권력의 지속

근대국민국가와 사회주의국가에서 3대 세습에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3대에 걸쳐 수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만경대가문’과 ‘백두혈통’의 3대가 카리스마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카리스마 권력은 위기의 시기에 나타나고 위기가 해소되면 합리적·관료적 권력(법적·합리적 지배체제)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의 경우는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에 근거를 둔 ‘백두혈통’이 권력을 잡은 이후 지금까지 3대에 걸쳐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전통적 권력과 카리스마 권력이 결합된 ‘수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의 지속이 카리스마 권력의 지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베버는 카리스마 권력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체제로서 지속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보았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권력 형태로 여겼다”고 한다. 베버는 카리스마 권력이 일정기간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고, 카리스마 권력에 기반을 둔 사회와 집단이 “세습적 지위 또는 직책상의 카리스마와 개인적 카리스마와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sup>36)</sup>

<sup>36)</sup>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pp. 62-63. “베버가 보기에 카리스마의 관례화는 근본적으로 자기모순적(자멸적인 것

권현익·정병호는 북한의 카리스마 권력이 어떻게 세습되는가에 주목하여 ‘극장국가’ 개념을 도입하고 예술과 정치를 연결하여 북한이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한 초월적 카리스마 권력을 어떻게 추구하는지를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밝혀내고자 했다.

베버의 주장에 의하면 위기가 해소되면 카리스마 권력은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 북한에서 김일성 중심의 유일체제가 수립된 이후 한반도에서는 위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다. 북한의 대남도발 등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도 있고, 한미동맹체제로부터 나오는 위협도 ‘피포위(被包圍) 위기인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북한은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한미군사연습을 당면 위협으로 인식하고 핵·미사일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고 있다. 북한의 피포위 위기인식은 전시동원체제적 위기관리체제인 ‘선군정치’와 ‘총대철학’의 명분을 제공했다.

외부의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국가가 내부분제로 쉽게 붕괴하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은 ‘철천지 원수 미국, 백년숙적 일본, 해방의 대상 남조선’ 등 외부의 적이 한둘이 아니다. 북한의 수령체제는 외부의 적들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인민들의 반복된 희생을 강요하면서 체제결속과 정권유지에 주력해 왔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에서의 카리스마 권력의 세습은 내부적 ‘극장국가 북한의 정치적 세습예술’과 외부적 위협이 만들어낸 ‘예외적 현상’일 수 있다.

북한이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에서 체제정당화의 근거를 찾는 ‘유격대 국가’, ‘수령제 국가’의 특성을 3대에 걸쳐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남북 분

---

이 아니라면) 과정이며 한편으로 카리스마 권력은 결국 전통적 권력으로 돌아가거나 합리적 관료구조의 형태로 발전하는 방식으로 어떤 다른 종류의 권력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만 하는 경계과정(liminal process)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버는 대체로 20세기 초에 카리스마 권력이 전통적 권력을 일시적으로(중종 폭력적인 수단으로) 대체하고, 이후에는 합리적-관료적-법적 권력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보았다.” 권현익·정병호, 위의 책, p. 63.

단체제, 북미 적대관계 등 한반도 냉전구조(냉전체제)가 유지돼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냉전이 진행되면서 줄곧 ‘전시 공산주의’와 ‘유격대식’의 혁명과 건설방식을 유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냉전체제와 분단체제의 유지는 수령체제 카리스마 권력 유지의 ‘영양소’이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예측한대로 북한이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김일성 주석 사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고난의 행군시대’를 거치면서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발생하고 이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옴으로써 북한연구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탈북자들의 집중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사회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보여주는 공식사회와는 다른 ‘또 하나의 북한 사회(제2사회)’<sup>37)</sup>가 있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북한사회가 지탱해온 동력이 ‘시장화’ 등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중앙공급체제의 붕괴에 따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는 북한사회의 밑으로부터의 변화요인이기도 하지만 북한정권이 지탱할 수 있는 국가재정의 수입원으로 작용하여 ‘통치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북한에서의 시장화 진전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영향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빅터 차는 “국가와 국민 간의 괴리는 북한정권의 이념 통제와 정치적 억압이 거세질수록, 그리고 사회가 더욱 더 시장화되고 기업의 경제화 속도가 더해질수록 커질 것”으로 봤다.<sup>38)</sup> 한편, 권현익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생존경제와 사회생활의 시장화 현상’이 전면화 되면서 “국가의 위상과 권력이 시장의 힘과 입지와 점차 대칭관계에 서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생활의 시장화는 비공식경제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도 기존에 국가

37)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38) 빅터 차, 『불가사의한 국가』, p. 36.

의 예술정치가 독점하던 공간을 점차 축소시키고 있다고 봤다.<sup>39)</sup> 애나 파이필드는 김정은 시대 “장마당이 최대경제주체”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sup>40)</sup> 이와 같이 중앙공급체계의 붕괴에 따른 시장화 현상의 확산은 국가와 주민사이의 괴리와 긴장관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의 영향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이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을 강조하면서 애국심 고취에 나서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회주의권 붕괴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북한붕괴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지도자 죽음이나 고위 탈북자가 생기면 북한붕괴론은 망령처럼 되살아난다. 기다리는 전략도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것이다. 북한이 붕괴되면 핵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주도의 통일이 이뤄질 것이란 희망적 사고가 북핵 고도화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외부 세계와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 다음 카리스마 권력의 핵심인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내부 엘리트들과 주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장화 촉진 등 외부세계와의 접촉면을 넓혀나가는 전략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 3. 국가성격 규정과 혼종성 연구

전통적인 북한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됐던 부분은 북한체제 또는 국가성격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북한연구자들은 김일성체제 성립과 유지과정에서 나타난 지배·통치방식에 주목하여 국가-체제-정권을 동일시하면서 북한지배체제의 성격을 나름대로 규정했다. 북한체제와

39) 권현익, “북한 문화·예술의 현황,” 『북한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전문가토론회 (2019. 2. 12), pp. 116~117.

40) 애나 파이필드, 『김정은 평전: 마지막 계승자』 (서울: 프리뷰, 2019), pp. 142~150.

국가성격 규정의 대부분은 위로부터의 통치방식과 통치원리에 주목한다. 따라서 체제와 정권유지의 위로부터의 정태적 통치메커니즘을 밝히는 데는 유용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정치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국가 또는 체제성격 규정과 관련해서는 논쟁이 일지 않았다. 논자들이 규정했던 유일체제(이종석)<sup>41)</sup>, 수령제(스즈키 마사유키)<sup>42)</sup>, 유격대국가와 정규군국가(와다 하루키)<sup>43)</sup>, 극장국가(권현익, 정병호), 조합주의 국가(브루스 커밍스), 신정체제(이상우), 술탄체제(최완규)<sup>44)</sup>, 수령체제(고유환) 등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국가성격의 여러 측면과 특정시기의 특징을 개념화한 것으로 일정한 적실성을 가지고 있기에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 국가성격 규정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3대 세습의 권력승계와 체제유지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는 유용하지만, 체제변화의 동인을 찾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북한연구의 주류가 ‘위로부터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치중했다면 앞으로의 북한연구는 주민의 일상을 비롯해서 인간과 사물행위자의 다양한 행위자-연결망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북한사회의 변화와 ‘혼종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자본주의세계경제(세계체제)로의 편입으로 전통적 의미의 ‘고전적 사회주의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자력갱생을 표방하고 있지만 북한의 사회구성체는 사회주의생산양식으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혼종

41)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 2000).

42) 스즈키 마사유키,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43) 와다 하루키,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울: 돌베개, 2002).

44) 최완규는 북한국가체제를 전체주의 체제와 술탄체제의 조합으로 봤다. 최완규,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내부는 사회주의+자본주의+봉건적 요소가 혼합돼 있다. 북한은 계획을 통한 자급자족이 어려워지면서 시장화의 진전을 사회주의 제도 안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세계경제(세계체제)에 완전히 편입된 중국과의 교역 증대,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협, 외국자본과 기술유치 등은 북한을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편입시키게 될 것이다.

북한이 표방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는 다양한 사회구성체가 결합돼 있는 사실상 혼종체제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중국, 베트남, 쿠바의 경험에 의하면 북한의 '혼종적 사회구성체'는 결국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수령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다. 개방이후에도 수령체제가 유지될 경우 영국 입헌군주제, 일본 천황제, 태국 왕제처럼 북한도 수령은 상징적으로 군림하고 내각총리가 통치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 V. 맺음말

남북분단에 따른 '시대의 아들'로 태어난 북한학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존재구속성을 벗어나 객관적 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다. 북한학이 객관적 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희망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여러 차례 반복한 '북한붕괴론'과 관련한 논쟁에서 확인한 것처럼 북한의 실상을 우리식 인식과 잣대로 바라볼 경우 객관적 분석과 예측이 어렵다. 서동만이 1990년대 북한연구를 평가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남한의 북한연구는 남한의 북한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북한의 자기인식을 시야에 넣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남한의 북한연구는 북한이란 현실에 의해 검

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sup>45)</sup> 북한연구에서 중시되어야 할 자세는 이념적 관점과 인식론에 따라 선험적 가치판단을 하지 말고 방법론에 충실한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6)</sup>

이제 북한연구가 북한학자의 전유물인 시대는 지났다. 북한연구에 어느 특정 방법론이 지배하는 시대도 지나갔다. 민족문제를 당위차원에서 다루는 한국학의 일부로서의 북한 특수주의와 예외주의를 극복한 지역 연구 대상으로서의 북한연구로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 연구방법 면에서도 사회주의체제와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전체주의 접근과 내재적 접근을 넘어 일상생활연구방법, 행위자-네트워크이론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북한문제에 적용하는 연구 성과들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사회의 혼종성과 사회구성체 변화 등을 진단하고 북한사회의 속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접수: 2019년 4월 30일 / 심사: 2019년 6월 20일 / 게재 확정: 2019년 6월 21일

45) 서동만, “북한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 90년대 연구성과와 문제점,” 『북조선 연구 서동만 저작집』 (파주: 창비, 2010), p. 121.

46) 김병로는 “남한이 원하는 바(wishful thinking)로서의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as it is)의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사회에 고착된 집단집착의 심리와 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 개념과 분석틀을 새롭게 구성”하여 북녘에 실재하는 감춰진 사회를 심층 분석할 것을 주장했다. 김병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참고문헌】

-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내재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 (1993).
- \_\_\_\_\_. “북한연구방법론: 재론.”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1998).
- \_\_\_\_\_. “북한연구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제26집 (1994년 가을호). 경남대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3.
- 고유환.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김정일정권의 진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2호(1996년 여름).
- \_\_\_\_\_. “북한연구 방법론의 성찰과 모색.” 조영주 편저.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 · 방법론 · 연구방법』.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5.
- \_\_\_\_\_.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창간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9).
- \_\_\_\_\_. “북한연구 현황과 과제: 정치.” 『북한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전문가토론회 (2019. 2. 12).
- \_\_\_\_\_. “북한연구동향.”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 60년사(증보분) 2003-2013』. 한국정치학회, 2013.
- \_\_\_\_\_. “북한연구에 있어 일상생활연구방법의 가능성과 과제.” 『북한학연구』, 제7권 제1호 (2011).
- \_\_\_\_\_.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위협인식과 대응에 관한 행위자-네트워크.”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2호 (2013).
- \_\_\_\_\_. “분단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15).
- 고유환 · 박희진 외 공저.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3.
- \_\_\_\_\_. 『함흥과 평성: 공간 · 일상 · 정치의 도시사』.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4.
- 공산권연구실 편. 『북한 정치체제 연구』. 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 곽차섭 엮음. 『미시사란 무엇인가』. 서울: 푸른역사, 2000.
- 권현익. “북한 문화 · 예술의 현황.” 『북한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전문가토론회 (2019. 2. 12).



-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파주: 창비, 2013.
- 김기봉. “북한에 대한 일상사연구의 가능성과 의미.” 박순성·홍민 엮음.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0.
- 김병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동국대 분단/탈분단연구센터 엮음.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5.
- 박길용·김국후. 『김일성 외교비사』. 서울: 중앙일보, 1994.
- 박순성·홍민 엮음.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0.
- \_\_\_\_\_.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3.
- 박재환 외 공저.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8.
-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9.
- Bruce Bueno de Mesquita·모종린. “북한의 경제개혁과 김정일 정권의 내구력 분석.” 『통일연구』, 창간호 (연세대 통일연구원, 1997).
-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 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2010.
- 빅터 차. 『불가사의한 국가』.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6.
- 서동만. “북한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 90년대 연구성과와 문제점.” 『북조선 연구서동만 저작집』. 파주: 창비, 2010.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 송두울. 『소련과 중국: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농민·지식인』. 서울: 한길사, 1990.
- \_\_\_\_\_.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당대, 1995.
- 스즈키 마사유키.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안드레이 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서울: 오름, 1995.
- 안병직 외 공저. 『오늘의 역사학』.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8.
- 알프 뢰트케 외 공저. 나종석 외 옮김. 『일상사란 무엇인가』. 서울: 청년사, 2002.
- 애나 파이필드. 『김정은 평전: 마지막 계승자』. 서울: 프리뷰, 2019.
- 와다 하루키.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울: 돌베개, 2002.

- 이국영. “독일 내재적 접근의 한국적 수용과 오해: 북한연구에 대한 함의.” 『통일 문제연구』, 제20권 2호 (2008 하반기).
- 이상근. “북한붕괴론의 어제와 오늘: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북한붕괴론에 대한 평가.” 『통일연구』, 제12집 2호 (2008).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 2000.
- 이현경. “북한연구 현황과 접근방향.” 『평화학연구』, 제11권 제4호 (2010).
- 조영주 편저.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 · 방법론 · 연구방법』.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5.
- 중앙일보.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 2』. 서울: 중앙일보, 1992.
- 최완규.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1』.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 \_\_\_\_\_.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2』.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홍 민.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북한연구.” 조영주 편저,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 · 방법론 · 연구방법』.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5.
- \_\_\_\_\_.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북한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2013).

Ben Highmore. *Everyday Life and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02.

Michel Maffesoli.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Epistemological Elements.”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Current Sociology*, Vol.37, No.1 (Spring, 1989).

## A Study on Trends and Issues of North Korean Studies

Koh, Yu-hwan (Dongguk University)

###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on North Korean Studies after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Nowadays North Korean studies is introducing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North Korean studies has been expanded and intensifi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n order to develop a North Korean studies we should overcome ideological prejudices and wishful thinking. We should also adopt various methodologies in the North Korean studie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overview North Korean research trends and issues by the classification of North Korean research generations. This article is focusing on research trends and issues in the political field of North Korean studies.

Key words: methodology of North Korean studies, classification of North Korean research generation, research trends of North Korean studies, North Korean political research issues, North Korean studies, North Korea collapse

**고유환(Koh, Yu-hwan)** 

---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소장 겸 북한학과 교수이다. 주요 논문과 저서는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리더십 변화: 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주의와 비핵평화 프로세스,” 『북한 핵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김정일연구』(공저), 『12시간의 통일이야기』(공저) 등 다수가 있다.